

경험과 훈련이 만든 베테랑 정성훈의 오늘

한 타석 기다림 위해 경기 끝난 뒤에도 늦은 시간까지 땀방울 성실함 바탕 최다경기 출전 신기록 써 가며 승부처마다 맹활약

한 타석을 위한 기다림으로 묵묵히 땀을 흘리는 KIA 야수 최고참 정성훈이다.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가 열린 3일, 훈련이 끝나고 막아웃에서 한숨을 돌리고 있던 정성훈은 고영득 트레이닝 코치로부터 "너무 열심히 한다"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들었다.

"아이고 허리아"를 입에 달고 살지만 일찍 경기장에 나오는 정성훈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늦은 시간까지 방망이를 돌리는 선수 중 한 명이다.

"늦은 시간에도 훈련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는 코치의 이야기에 정성훈은 '한 타석을 위한 기다림'이라면서 웃었다.

지난 시즌 LG에서 방출된 뒤 여우격렬친정 KIA로 돌아온 정성훈은 대타 역할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후배들과 야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 내려가고 있다.

정성훈은 "한 타석을 위해 준비를 하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는 허무하다. 그래도 오래 야구를 하다 보니 상대 투수들의 유형을 다른 선수들보다 더 잘 알고 있

다. 좋은 결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언제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다.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위치라서 연습을 더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웃었다.

정성훈은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잠시 엔트리에서 빠지기도 했다. 재출전을 끝내고 복귀한 후 3일 경기 전까지 17타수 9안타로 0.529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베테랑의 힘을 과시한 정성훈. 지난 29일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고 또 뒤집는 안타를 연달아 터트리면서 연장 역전극의 주인공이 됐다.

기다림의 시간이 더 많지만 정성훈은 누구보다 행복하다. "사실 1군에 돌아와서 감이 너무 안 좋았다. 운이 좋았다. 빗맞은 타구가 안타가 되어주면서 경기가 잘 풀린다. (29일) 두산과의 경기는 1년에 한 두 번 오는 되는 날이었다(웃음)"며 "사실 나도 (두 번째) 안타를 치면서 깜짝 놀랐다. 안타를 칠 수 있는 공이 아니었는데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이면서 안타가 됐다. 나도 그 상황을 뭐라고 설명할 수 없

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알아서 반응했다"고 말했다.

오랜 경험과 여전한 훈련으로 만들어진 '정성훈표' 안타. KBO리그 최다 경기 출전 선수로 매 경기 자신의 기록을 경신해 나가고 있는 정성훈이지만 흔히 말하는 '교과서적인 타자'는 아니다.

정성훈은 "정석의 품은 아니다. 타석에서 똑같이 투수를 보는 것 같은데 화면을 보면 몸이 위로 쏠려있다. 사실 변형적인 타격이다. 방망이는 답이 없다. 나는 해오던 대로 하고 있다"며 "각자 치고 싶은 방 [식이 있을 것이다. 나도 어렸을 때는 다른 폼때문에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만두더라도 후회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잘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기다림의 시간이 더 많지만 정성훈은 누구보다 행복하다. "사실 1군에 돌아와서 감이 너무 안 좋았다. 운이 좋았다. 빗맞은 타구가 안타가 되어주면서 경기가 잘 풀린다. (29일) 두산과의 경기는 1년에 한 두 번 오는 되는 날이었다(웃음)"며 "사실 나도 (두 번째) 안타를 치면서 깜짝 놀랐다. 안타를 칠 수 있는 공이 아니었는데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이면서 안타가 됐다. 나도 그 상황을 뭐라고 설명할 수 없

정성훈은 "야구를 못 할 뻔했다.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 후배들 훈련하고 경기하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다. 야구 하는 게 즐겁다"고 미소를 지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KIA 연장 10회 무사 2루에서 5번타자 정성훈이 2루타를 날리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안치홍 "울스타전 욕심 부리지 않고 즐기고 올 것"

경기 덜 치른 김기태 감독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덕아웃 T 특특

▲좋은 선수들과 좋은 시간 보내겠다 = 2년 연속 울스타 베스트 선수로 선정된 안치홍은 "영광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안치홍은 지난 3일 발표된 울스타전 '베스트 12'에 이름을 올렸다.

나눔 울스타 2루수 베스트 선수가 된 안치홍은 팬투표에서는 한화 정근우에 밀렸지만 선수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2년 연속 베스트 선수로 울스타 무대를 찾게 됐다. 안치홍은 "울스타를 갖 것이라고 생각 못 했는데 영광이다. 큰 욕심은 부리지 않

고 좋은 선수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즐기고 오겠다"고 말했다. '베스트 12'는 팬투표와 선수단 투표를 각각 70%, 30% 비율로 합산해 결정됐다.

▲범수가 잡혀서 = 훈련을 치고도 가슴을 쫓았던 고졸 3년 차 내야수 류승현. 지난 6월 3일 두산전에서 처음 1군에 등록돼 첫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했던 류승현은 수비 약점을 보이면서 지난 17일 1군에서 말소됐다. 그리고 지난 29일 이범호의 부상으로 다시 1군에 등록된 류승현은 이날 두산과의 경기에서 잡실 담장을 넘기면서 프로 데뷔 훈련을 기록했다. 류승현은 "앞에서 (신)범수의 타구가 (호수비에) 잡혀

서 훈련을 확실하지 못했다. 훈련은 쳤지만 팀이 크게 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쁜 마음은 없었다"며 "2군에 내려간 뒤 더 편한 마음으로 경기를 하면서 타석마다 투수들과의 수싸움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다. 자신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나중에 가면 똑같은데 = KIA는 올 시즌 비와 미세먼지로 예정됐던 10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날씨 탓에 1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77경기를 소화한 KIA. 다행히 태풍이 비껴가면서 3일 경기를 치르게 된 김기태 감독은 "예보 상 비가 없어서 다행히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경기를 많이 못 했지만) 나중에 가면 똑같다.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수단 정비 잘해서 전반기 남은 경기 잘 치르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산행안내

- 7월 7일(토) ▲광주호산회 7월 7일(토) 통영 비진도, 05:00 팜양동 롯데마트 7주차장, 05:20 롯데백화점 문화예술회관 경유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http://cafe.daum.net/gwangjuhosan)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 ▲광주금당산악회 7월 7일(토) 해남 남도의 명품길 "달마산 달마고도길" 트레킹, 봉선동 롯데마트 앞 06:10, 진월동 식자재마트 앞 06:20, 영주체육관 06:30, 한국병원 앞 06:40, 문예회관후문 06:50, 비엔날레주차장 07:00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 7월 8일(일) ▲광주산가족산악회 7월 8일(일) 고성 성지산 갈모봉산&산림욕장 둘레길 산행, 영주체 07:30 대인광장 07:50 동광주읍 08:00 *다음카페 광주산가족산악회 ☎ 010 6886 9106
- ▲광주산사모산악회 7월 8일(일) 경남 산청 지리산 백운동계곡, 06:30 영주 모아레포츠 입구, 07:05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앞, 07:20 비엔날레 주차장, 07:30 문화예술회관 후문 앞 *다음카페 광주산사모산악회 ☎ 010 3603 8370, 010 3606 8081
- 7월 8일(일) ▲광주산친구산악회 7월 8일(일) 지리산 의신 대성골, 영주동 체육관 정문 06:30, 에스엘병원 06:35, 월산동,오민석산경의과 06:38, (구)남구의회 맞은편 06:40, S-OIL유주소(농성) 06:45, 신세계백화점 육교 옆 06:50, 문예회관 후문 06:55, 비엔날레주차장,도로변 07:00 *다음카페 광주산친구산악회 ☎ 010 6462 5014
- ▲광주자연보전단사회 7월 8일(일) 함양 거망산(1184m) 태장폭포와 지장폭포의만남 계곡트레킹, 영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출판사 07: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단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 7월 11일(수) ▲광주청록산악회 7월 11일(수) 경북 문경 대야산(930.7m)-용추계곡,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6:50, 교직원공제회관 07:00, 예술회관후문 07: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7: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 7월 14일(토) ▲광주호산회 7월 14일(토) 포천 산정호수 한탄강 하늘다리, 05:00 팜양동 롯데마트 7주차장, 05:20 롯데백화점 문화예술회관 경유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http://cafe.daum.net/gwangjuhosan)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 7월 15일(일) ▲광주새무등산악회 7월 15일(일) 경남 함양군(영취산, 부전계곡) 산행, 07:40 부일공업사, 광주역 08:00, 예술회관후문경유 08:10 *다음카페 광주새무등산악회 ☎ 010 3616 6300, 010 3901 5667
- ▲빛고을무지개산악회 7월 15일(일) 부안 위도, 06:00 영주체육관, 06:20 학동.중심사입구지하철역 3번출구, 06:40 광주역, 06:45 문예회관후문, 06:50 동광주웨딩프라자 *다음카페 빛고을무지개산악회 ☎ 010 3620 2002
- 7월 18일(수) ▲광주청록산악회 7월 18일(수) 충북 옥천 월야산(551.4m)/옥계폭포,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6:50, 교직원공제회관 07:00, 예술회관후문 07: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7: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 7월 21일(토) ▲광주호산회 7월 21일(토) 파주, 마장호, 갑악산, 출렁다리와 수변길 트레킹, 05:50 (문예후문 경유)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3608 4267
- ▲광주호산회 7월 21일(토) 덕유산 원추리 꽃 산행, 06:30 팜양동 롯데마트 7주차장, 07:00 롯데백화점 문화예술회관 경유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http://cafe.daum.net/gwangjuhosan)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 ▲광주금당산악회 7월 21일(토) 부안 변산반도 마실길 고사포 트레킹, 봉선동 롯데마트 앞 06:10, 진월동 식자재마트 앞 06:20, 영주체육관 06:30, 한국병원 앞 06:40, 문예회관후문 06:50, 비엔날레주차장 07:00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 7월 22일(일) ▲광주자연보전단사회 7월 22일(일) 함백산(1573m) 강원도 정선군)-금대봉(1418m) 야생태 테마 트레킹, 영주체육관 03:40, 무등경기장 04:00, 동광주출판사 04: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단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 7월 25일(수) ▲광주청록산악회 7월 25일(수) 전남 고흥 봉래산(410m)/나로도해수욕장,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6:50, 교직원공제회관 07:00, 예술회관후문 07: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7: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 7월 28일(토) ▲광주호산회 7월 28일(토) 해파리길 14구간, 05:00 팜양동 롯데마트 7주차장, 05:20 롯데백화점 문화예술회관 경유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http://cafe.daum.net/gwangjuhosan)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 8월 12일(일) ▲빛고을무지개산악회 8월 12일(일) 보령 대천해수욕장, 06:00 영주체육관, 06:20 학동.중심사입구지하철역 3번출구, 06:40 광주역, 06:45 문예회관후문, 06:50 동광주웨딩프라자 *다음카페 빛고을무지개산악회 ☎ 010 3620 2002

'메이저 퀸' 박성현 2주연속 우승 도전

내일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 출전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박성현(25)이 내진김에 2주 연속 우승에도 도전한다. 박성현은 5일부터 나흘간 미국 위스콘신주 오나이다의 손베리 크리크(파72·6천624야드)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총상금 200만 달러)에 출전한다.

지난해 L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 상금왕, 신인상을 휩쓴 박성현은 올해 '2년차 징크스'에 시달렸다.

데뷔 첫해 한 번도 컷 탈락이 없었지만 올해에는 벌써 다섯 번이나 컷 통과에 실패했다.

특히 최근 4개 대회에서 컷 탈락 세 번에 공동 61위 한 번 등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던 박성현은 2일 끝난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으로 일단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시즌에도 데뷔 첫해에 우승이 없다가 7월 역시 메이저 대회인 US오픈을 제패하며 '우승 갈증'을 해소했던 박성현으로서는 2년 연속 '행운의 7월'이 된 셈이다.

상금 순위도 35위에서 5위로 상승했고, 올해의 선수 부문도 2위로 올라서며 선두 경쟁에 뛰어든 채비를 마쳤다.

물론 올해 주요 부문 선두를 질주하는 에리아 주타누간(태국)과 차이는 아직 큰 편이다.

상금 1위 주타누간은 177만 달러를 벌어들인 박성현을 거의 두 배 이상 앞서 있다.

올해의 선수 부문도 주타누간이 150점, 박성현은 94점으로 차이가 크다.

하지만 지난해처럼 시즌 초반까지 접어들면서 추격의 속도를 높인다면 올해도 주요 부문 석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면 올해의 선수 포인트 60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전이 가능한 격차다.

박성현은 지난해 창설된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은 출전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에 고전하던 퍼트가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라운드당 28.5개로 줄며 자신감도 크게 올라왔다.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은 박성현 외에 주타누간과 전인지(24), 고진영(23), 지난해 이 대회에서 3위에 오른 김세영(25) 등이 출전한다.

브룩 헨더슨(캐나다), 리디아 고(뉴질랜드) 등도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 | |
|----|----------------------------|
| 1관 | 마녀 |
| 2관 | 마녀 |
| 3관 | 허스토리 |
| 4관 | 탐정: 리턴즈 |
| 5관 | 탐정: 리턴즈 |
| 6관 | 마녀 |
| 9관 | 오션스8 |
| 7관 | 씨네커를 독전, 나와 봄날의 약속 |
| 8관 | 씨네커를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 미드나잇 선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즐거운 문화 산책

계룡산 문화행사

체임버 나잇: Air to Aria

DIVA IN NEWYORK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문의 (062)613-8353

| | | |
|------------------------------------|--------------------|--------------|
|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전 계룡산 철화분청사기 | 6. 15(금) ~ 7. 8(일) |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
| 광주시립교향악단 가족음악회 체임버 나잇: Air to Aria | 7. 6(금) pm 7:30 |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
| 청소년음악회 소프라노 홍혜란의 DIVA IN NEWYORK | 7. 19(목) pm 6:30 |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
| 11시 클래식 산책 슈만과 클라라, 브람스의 완전한 사랑 | 7. 17(화) am 11:00 |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